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 전주시 완산구, 홍보 만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매입시 소득기준 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 시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사유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소급적용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없음	2022. 6.21.
	주택가액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2억 이하	
	세액감면	1.5% 이하 100% 3억원 이하 50%	200만원 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시 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정될 수 있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완산구는 환급대상자에게 직권 환급을 위해 환급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세무과(063-220-5292, 5432)로 문의 가능하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감면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할 것을 강조하며, "지방세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설공단 현황 지도 제작

### 현수막 게시대·벽보판 위치·가격 등 정보 제공

전주시설공단이 현수막 게시대 등 옥외 광고물 게시대 위치 등을 한번에 알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했다.

이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옥외 광고물을 이용해 판촉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16일 공단은 소상공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옥외 광고물 게시대 현황 지도를 배부하고 상단 광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광고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제작된 지도는 완산구와 덕진구 양 구에 설치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와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옥외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의 위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현수막 게시대 상단 광고판은 위치는 물론 금지별 연간사용료와 크기 등의 세부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상단 광고판은 현수막 게시대 구조물의 상단 부분을 활용한 광고

수단으로 연 단위로 광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장기간 광고 수요에 적합하다.

추적으로 위치가 정해지는 일반 현수막 광고와 달리 광고주가 광고판 위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수요가 적은 일부 상단 광고판은 지난해 일반 현수막 게시대로 변경됐다.

이후에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게시대를 관리해 나간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전주시설공단은 현재 총 171개 지점의 현수막 게시대 998면과 상단 광고판 83면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방현주 복지환경부장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적극적인 광고 유치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하라” 한목소리

###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회의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성명서 안건 채택

전북지역 시장·군수들이 최근 불거진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멈추고,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심민입실군수)는 16일 남원시 예촌 사랑마루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즉

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에서 "시장 상황에 따른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근거로 제대로 된 확인 절차나 객관적 근거 없이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을 내세우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모순된 주장"이라며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에 금융중심지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공영방송 기자의 지역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오랜 세

월 국토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의 절망감은 도외시하고 썩지 못할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전라북도 시장·군수들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공작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전북금융중심지 조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영태 기자

## 국민연금 역대 최저 수익률 악화 따른 국민회복 필요

### 기금운용본부 주요 보직 인사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보직 인사는 수익률 제고 방안 중 하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박성태 현 전략부문장을 뉴욕 사무소장에, 이석원 현 주식운용실장을 전략부문장으로 오는 4월 10일자로 임명된다.

지난해 통화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투자환경 악화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이 역대 최저 수익률을 보임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 방침의 일환으로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임명은 해외사무소의 전초적인

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초과수익 창출을 위해 자산배분 체계 개선하고 대체투자 전략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추진에 검증된 리더십이 요구됨에 따른 임명으로도 해석된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해외투자 강화와 조직의 역동성을 끌어올려 수익률 제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뉴욕 사무소장 박성태(現 전략부문장) ▲전략부문장 이석원(現 주식운용실장) ▲안자용 주식운용실장(現 인프라투자실장) ▲황미옥 인프라투자실장(現 대체리스크관리실장) ▲이재욱 대체리스크관리실장(現 뉴욕 사무소장) ▲박원웅 런던 사무소장(現 대외협력단장)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완산구, 하천·녹지 환경정비 나선다

### 21개소 하천 대상 안전시설물 등 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가 새봄을 맞아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및 도심녹지 환경 제공을 위해 본격적인 환경정비에 나선다.

완산구에서는 새봄을 맞아 늘어나는 하천 이용객 및 도심 유동인구를 대비해 하천 시설물 및 수목 정비, 가로수·화단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점검하고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날이 풀리면서 하천 산책을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책로의 노후 운동시설물 전수조사 및 교체·정비 △플래키 및 지장수목과 잡목제거 △제방, 호안 저수로 유지보수 △하천 내 쓰레기 수거 및 불법 현수막 철거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21개소의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나섰다.

아울러 도심속 가로수 중 △고사목과 수형 불량목 정비 △재해 위험목·피해목 정비 △가로수 뿌리정비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등을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단정하고 푸른 도시의 이미지를 유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쾌적하고 산뜻한 도시의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정비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선도적 미래치안 구현 위한 협약 체결

### 전북경찰청-전북자치경찰위원회, 과학기술 접목 안전 강화 기대

강광수 전북경찰청장과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전북경찰청에서 선도적 미래치안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자 교통사고에 따른 전북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의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지역 안전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앞으로 양 기관은 과학치안·연구개발사업과 수요기반 치안 현장 적용기술개발의 내용으로 업무협약 하고, 주민 안전과 과학 치안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종춘 호수공원 환경개선, 안전한 대학가 만들기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강 청장은 "위험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미래 사업에 경찰의 새로운 치안정책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계 경장 이정아(063-280-8341)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